

이주홍 소설의 서지적 연구

류 종 렬*

차 례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 서론

향파 이주홍(1906-1987)은 1928년 『신소년』 5월호에 동화 「뱀새끼의 무도」와 192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가난과 사랑」이 '선의 가작', 그리고 1929년 『여성지우(女性之友)』 12월호에 「결혼전(結婚前)날」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였는데¹⁾ 작고하기까지 60여 년을 일관되게 작품활동을 해왔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일반적으로 향파가 문단에 데뷔한 작품은 1925년 아동잡지 『신소년(新少年)』에 실린 동화 「뱀새끼의 무도(舞蹈)」와 192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입선작인 단편 소설 「가난과 사랑」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뱀새끼의 무도」는 『신소년』지에 1925년이 아닌 1928년 5월호에 실려있는 작품이며, 그 제목도 「배암새끼의 무도」였다[나까무라 오사무(仲村修), 새로 발굴된 『신소년』지, 2002. 5. 22.(이 글은 2002년 5월 22일 부산시 서면 동보서적 4층 문화홀에서 열린 '이주홍 문학의 밤'에서 발표된 유인물이다). 그리고 박태일, 「이주홍의 초기아동문학과 신소년」, 『현대문학이론 연구』 제18집(현대문학이론학회, 2002. 12.)]. 이러한 사실은 향파 자신의 기억상의

우리 근대 문학사에서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아동문학, 번역 등 문학의 전 장르에 걸쳐 6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였고, 펴낸 책만 200권이 넘는 작가는 향파 이외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은 아동문학사를 제외하고는 우리 근대 문학사나 소설사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그의 소설에 대한 연구도 소루한 감이 없지 않다. 그 원인은 작품의 질적 수준의 문제에 있다기보다는 그가 문학의 전 장르에 걸쳐 작품활동을 하였다는 점, 광복 후 거의 부산에 살면서 창작활동을 해 왔고, 그의 작품세계가 1960-70년대의 비판적 리얼리즘에서 비껴나 있다는 점 등이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또한 소설가로서보다는 오히려 아동문학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도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 글은 향파의 소설을 한국 근대문학사나 소설사에서 온당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적 작업으로 이주홍 소설의 서지를 밝히고자 쓰여졌다. 필자는 이미 향파 소설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²⁾ 그러나 연구도

오류로 빚어진 잘못된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엄밀한 의미에서 향파의 문단 데뷔작이 아니고 향파가 독자로서 이 잡지에 투고한 것이 독자 문예란이 아닌 본문 속에 실리게 되었기에, 자신이 당선작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일보』신춘문에 입선작으로 알려진 소설 「가난과 사람」은 정확히 말하자면 '선외가작'이다. 『조선일보』 1월 1일자 신문에 의하면, 1등 당선작은 박계화(朴啓華)의 「나의 어머니」이고, 2등 당선작은 전춘호(田春湖)의 「자기(自己)의 길」이다. 박계화는 백신애, 전춘호는 전영택의 필명이었다. 선외가작으로는 최인준의 「춘보(春保)」, 이주홍의 위의 작품, 이원조의 「탈가(脫家)」, 김성도의 「유혹(誘惑)」, 신진수의 「마파람」 등 5편이었다.

선외가작은 작품이 신문에 발표되지 않았기에, 향파의 「가난과 사람」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결혼전날」은 향파의 소설로는 실질적인 처녀작이다.

- 2) 류종렬, 「위식된 삶의 풍자-이주홍의 소설세계」, 『부산문화』 13호, 부산문화회, 1987. 3. ; 『갈숲』 제25량, 태화출판사, 1987. 6.

_____, 「이주홍의 역사소설 연구-〈어머니〉를 중심으로-」, 『외대논총』 18집 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1998. 2.

_____, 「이주홍의 〈아버지〉 연구」, 『비교문화연구』 10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2.

_____, 「이주홍 소설 연구의 현황과 방향」, 『우암어문논집』 10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우암어문학회, 2000. 2.

_____, 「이주홍 초기소설의 작품세계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1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12.

_____, 「〈결혼전날〉에 대한 소고- 이주홍 문단 당선작의 의미」, 『오늘의 문예

중에 무엇보다 소설 작품과 소설집의 서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³⁾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향파 자신이 작성한 연보나 한국 현대문학사 연표, 한국문인사전 등에서도 많은 오류가 있었다.⁴⁾ 뿐만 아

비평』 48호, 2003년 봄호, 2003. 3

_____, 「이주홍의 미완의 장편소설 「야화(夜花)」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 33집, 한국문학회, 2003. 4.

- 3) 필자는 이미 「이주홍 소설 연구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논문의 부록에 이주홍 소설과 소설집 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 이 목록은 권영민의 『한국근대문인대사전』(아세아문화사, 1990. 7.)과 권영민 편저의 『한국현대문학사연표(1)-시·소설-』(서울대출판부, 1987. 5.), 이주홍의 소설집 『깃발이 가는 곳을 향하여』(태화출판사, 1984. 9.)의 <이주홍 연보>를 저본으로 하고, 김근수 편저의 『한국잡지 개관 및 호별 목차집』(한국학자료총서 제1집, 한국학 연구소, 1988. 6. 재판)과 『한국잡지 개관 및 호별 목차집-해방 15년』(한국학자료총서 제5집, 한국학 연구소, 1988. 5. 재판), 그리고 『한국 현대문학 자료 총서 -1945년 8월~1950년 6월-, 총목차집』(거름, 198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권영민의 두 책과 <이주홍 연보>에 소설(집)으로 적혀 있는 것은 일단 이 목록에 모두 올려 놓고 필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소설과 소설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소설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아울러 당시는 조사기간이 부족하였고 또한 필자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소설(집)들도 많이 있어, 잘못된 내용도 적지 않았다. 이 글은 이러한 작업의 바탕 위에서 그 동안의 확인 작업을 거쳐 좀더 완벽한 소설 서지를 작성하고자 쓰여졌다.
- 4) 소설작품의 목록으로 대표적인 오류를 들면, 권영민의 『한국근대문인대사전』에 소설로 적혀 있는 「아들 삼형제」, 「제비꽃과 굴바위」, 「천신과의 약속」, 「연못가의 움막」, 「미옥이」, 「아름다운 악마」 등은 동화 또는 소년소설이다. 또한 소설집으로 적혀 있는 「요전수(搖錢樹)」나 『격랑(激浪)을 타고』는 앞의 것은 중국고전 문학의 설화를 소재로 한 번역에 가까운 책이며, 뒤의 것은 교회 기념 수상선집이다. 그리고 『탈선 춘향전』이 1972년 삼성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고 적혀 있는 것은 잘못된 기술이다. 삼성출판사에서 발간한 것은 『회문·탈선 춘향전』이고, 『탈선 춘향전』은 1951년 남광문화사에서 간행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출판사가 동서문화사인데, 동아문화사로 잘못 적혀 있다. 그리고 소설집인 『해변』을 시집란에도 적어 놓았다. <이주홍 연보>에도 잘못된 기술이 몇 군데 있다. 그 밖에, 한원영, 『한국 현대 신문 연재소설 연구·하』(국학자료원, 1999. 7.)에 단편소설 「출분(出奔)」이 이주홍의 작품(삼화: 정진업)으로 1953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9회 연재되었다고 적혀 있으나(1232쪽),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결과, 이 소설은 정진업(鄭鎭業)의 작품이고 향파가 삽화를 그렸다. 그리고 단편소설가협회 창작집인 『소설열네마당』(부산문예사, 1983. 6.)에 단편소설로 실려 있는 「목마아저씨」는 소설이 아니고 동화이다. <연보>에도 1982년 『아동문예』에 실려 있다고 하였고, 동화집 『사랑하는 악마』(창작과 비평사, 1983)에도